

‘탄핵’ 페루 전 대통령 “새 집권층은 권력찬탈자”

“역할 포기 안해” 옥중 손편지... 탄핵반대시위 거세질듯 경찰·시위대 충돌 지속... “주말 2명 이어 2명 추가 사망”

‘정치적 무능’을 이유로 의회에서 탄핵당한 뒤 구금된 페드로 카스티요(63) 페루 전 대통령이 연일 탄핵반대시위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에서 자신이 여전히 페루의 대통령이라면 신임 대통령이 권력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을 “16개월 전 국민 여러분이 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은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임을 부각시켰다.

이어 자신은 “굶욕당하고, 고립되고, 학대를 받다 ‘납치’됐지만, 여전히 주권자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투쟁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면서 “게다가 우리 선조들의 영광스러운 영혼까지 깰어져 있을

을 말씀드린다”고 썼다.

그는 “페루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역할에 무조건 충실할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저의 높고 신성한 기능을 놓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드린다”고 했다.

탄핵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디나 블루아르테(60) 신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권력 찬탈자가 최근에 말한 것(조기 대선·총선)은 쿠데타 우파의 준비물 같은 말”이라며 “새로운 선거라는 추잡한 게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권력 찬탈자’는 페루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에 취임한 블루아르테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앞서 블루아르테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2026년으로 예정된)

선거를 2024년 4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여전히 페루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블루아르테 대통령이 약속한 조기 선거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번 ‘옥중 메시지’는 전국적인 카스티요 지지자들의 시위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도 페루 아레키푸에 있는 알프레도 로드리게스 바온 국제공항에서는 400여명이 활주로 한복판에 타이어나 돌덩이를 가져다 놓거나, 타이어나 관제실에 불을 지르며, 의회 해산과 블루아르테 대통령을 성도하는 구호를 외쳤다.

다만, 시위대 해산 작전을 펼치던 경찰과 일부 시민이 충돌해 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행정과 공공 서비스 실패를 감시하는 헌법 기관인 페루 옴부즈맨 사무소는 이 사실을 전하며 “아푸리막 지역에서도 지난 주말 2명에 이어 이날 또 다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에 새총 겨누는 시위대 정치무능으로 탄핵된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페루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2일(현지시간) 수도 리마에서 ‘대통령 탄핵 항의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새총을 겨누고 있다. /EPA=연합뉴스

美 90세 할머니, 대학 입학 71년 만에 학사 학위 취득

결혼과 함께 학업을 중단했던 미국의 90세 할머니가 대학 입학 71년 만에 졸업장을 손에 들었다.

12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과 USA 투데이 등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 조이스 드파우(90·사진) 할머니는 지난 시카고 서부 교외의 노던일리노이대학(NIU)서 열린 2022 하반기 학위 수여식에 20대 동기들과 나란히 참석했다.

졸업가운을 입고 학사모를 쓴 채 휠체

어에 앉아 있다가 걸어서 무대 위로 올라 졸업장을 받은 할머니는 “이 순간까지 71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감이 교차한다. 감격스러울 뿐”이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드파우 할머니는 NIU가 교사 양성기

관이던 1951년,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다.

전공을 초등교육에서 가정경제학으로 바꾸며 3년 반을 다닌 드파우 할머니는 1955년 결혼을 하며 학교를 그만뒀다.

할머니는 세 자녀를 낳은 지 3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고 재혼 후 여섯 명의 자녀를 더 낳아 육아와 집안일 부담으로 대학으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우박에 볼리비아 졸업식장 지붕 붕괴 7명 사망

남미 볼리비아에서 학교 졸업식 도중 우박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졸업식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7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12일(현지시간) 볼리비아 일간지 엘 데베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볼리비아 산골 마을인 라파스 주 아차카치 시 산타아고데 파차리아에 폭우와 함께 우박이 쏟아졌다.

당시 이 마을 한 학교에서는 구알베르토 비야로엘 학교 졸업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우박 덩어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행사장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인파를 덮쳤다.

갑작스러운 붕괴로 7명이 숨졌다. 사망자 중 2명은 행사를 위해 일하던 근로자로, 잔해 속에 갇혔다가 수색 몇 시간

뒤에 발견됐다.

17명은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10명은 중상자

라고 정부 당국은 밝혔다.

유족들은 참고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리비아 학교 졸업식장 지붕 붕괴 사고 현장.

‘카타르 EU 로비 스캔들’ 일파만파

유럽의회도 압수수색... “유럽 신뢰성 문제” 경고

2022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유럽 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벨기에 수사 당국이 유럽의회 사무실까지 수색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연방 검찰청은 지난 9일 이후 유럽의회 사무실 1곳과 개인 주거 공간 19곳 등을 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벨기에 검찰은 유럽의회를 상대로 한 걸프지역 국가의 영향력 행사 의혹과 관련해 범죄 단체 가담과 돈세탁, 부패 등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리스 당국은 이날 카탈리 부 검찰은 기소한 4명의 신원과 로비를

벌인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문제의 국가는 카타르이고 그리스의 TV 앵커 출신인 예바 카일리(44) 유럽의회 부의장이 기소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카일리 부의장은 월드컵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린 카타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언행을 이어왔다.

카타르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당국은 이날 카탈리 부 의장의 부당산과 계좌 등 자국내 자산

동결을 명령했다.

사건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유럽내 경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베르타 메츨라 유럽의회 의장은 “유럽의 민주주의가 공격받은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조사 의지를 밝혔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윤리 기구의 창설을 주장했다.

영국방송 BBC는 이번 뇌물 사건이 유럽 의회 역사상 최대의 부패 스캔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유럽의회는 EU의 27개 회원국에서 투표로 선출된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 기구다. /연합뉴스

“코골이 치료 코 스프레이 개발”

코를 심하게 골고 자면서 간헐적으로 호흡이 끊기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 SA: obstructive sleep apnea) 치료를 위해 개발된 실험 신약이 예비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플린더스 보건 의학 연구소(FH MRI: Flinders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수면 건강 연구실의 대니 에케트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이

신약 후보물질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비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MedicalXpress)가 12일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 약물을 비액(nasal drops)으로 콧속에 넣거나, 스프레이로 콧속에 뿌리거나, 내시경을 이용해 상기도에 직접 바르는 3가지 방법으로 이 약의 효

과를 시험했다.

임상시험 참가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엔 진짜 약, 다른 그룹엔 가짜 약이 투여됐다.

3가지 방법으로 이 약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투여하면서 연구팀은 이들의 수면 상태와 상기도의 활동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진짜 약이 투여된 그룹은 가짜 약이 투여된 대조군보다 수면 중 기도개 열려 있는 상태가 꾸준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www.slhealth.co.kr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p>후지의료기 PFC-7900</p>  <p>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p>	<p>후지의료기 JP-870</p>  <p>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료기기인증</p> <p>주요기능 : 40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p>	<p>사파헬스케어 SF-5100</p>  <p>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압제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p>	<p>사파헬스케어 SF-5000</p>  <p>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p> <p>주요기능 : 5D압제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p>
--	---	---	---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